##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 성 바로알기 | 호남 문화 | 법과 질서

# 아름다운 동행의 인사(人師) 기다려진다

조만형

올해 스승의 날에 섬마을 여선생님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제정해 처음 시행한 '제1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가 되었다. 그 섬은 지방 중소도시로부터 서너 시간쯤 떨어진 낙도요, 육지에서 뱃길로도 한 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이다.

'밥 짓는 선생님'으로 알려진 진도 조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연주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재학생이라야 모두 30여 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이지만 지난해 개교 30여 년 이래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합격생을 배출하여 우리 사회를 놀래게 한 적이 있기에 이번 스승상의 주인공으로 조연주 교사의 대상 수상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겠다.

조 교사는 저녁을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우기가 일쑤인 학생들을 위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허름한 창고를 식당으로 개조하고 주방 아줌마를 자처하며 저녁 급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어 내어 올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전남대, 광주교대 등에 당당히 합격자를 배출하는 토대를 만든 조 교사의 열정은 5월을 훈훈하게 만든 교육 미담이었다. 이 사례는 학원 하나 없는 섬에서 일구어낸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난 17일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여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빚어진 교사의 실수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해당 교사는 이제 교직을 시작한 지 2개월 된 초임교사라고 하니 그 교사의 심정이 어떠할지는 배경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진다.

게다가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가 교실에 찾아가 교사들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학부모의 극단적인 폭행 사유가 자기 아이에게 반장을 맡기지 않은 것과 수련회에서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했던 일이나 교내 대회에서 장려상밖에 못 받은 점에 있었다고 하니 일부 학부모들이 가진 교직에 대한 인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굳이 헨리 반 다이크(H.V.Dyke)의 '무명교사 예찬'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힘은 이름 높은 교육자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열정을 쏟아내는 앞의 조 교사나 뒤의 초임교사에 있다고 본다.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장려상을 받을 아이와 우수상을 받을 아이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교사의 공정성이 바로 우리 교단을 견인해가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오천석 선생은 그의 '스승'이란 저서에서 '교사의 귀는 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며,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이 한낱 지식의 전수자로만 머문다면 그 교사는 단지 경사(經師)일 뿐 참된 인간을 길러내는 인사(人師)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선생께서는 가르치는 일이 찬란한 영예나, 높은 권좌나, 뭇 사람의 찬사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길이 극히 험난하고 지루하게 단조로우며, 때로는 찢어지게 가난한 낙도에서, 때로는 다 찌그러진 몇 개의 단간 초가밖에 없는 산촌에서 열악한 환경과 싸워야 하는 노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함에 감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오늘날 교단에 대한 숱한 도전과 폭력까지 동반한 교사 경시 풍조마저도 잠재울 수 있는 힘은 진정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국민의 뜻을 무서워한다는 300인의 '선량'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제19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도 비슷한 시각, 소위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어느 정당에서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불법 투성이었다 하여 폭력이 춤추고, 협박과 거짓말의 싸움잔치가 한창이다.

이렇듯 학교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은 교단 내부 작용도 있겠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사회 현상에도 있다. 다시 한번 제2, 제3의 조 교사와 같은 묵묵한 교단 행진이 기다려진다. 무명교사의 예찬과 교사의 기도가 곧이곧대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동행들을 만나고 싶다. 5월이기에 더욱 그렇다.

〈동신대교수·법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농어촌 학교 무더기 통폐합 부작용 크다

전남지역 6학급 미만 소규모 초·중·고교가 무더기 통·폐합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농산어촌 '미니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의 무더기 통·폐합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교과부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개정령안을 보더라도 '초·중학교의 학교당 학급수를 6학급(20명 기준)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남지역 초등학교는 39개교, 중학교는 194개교 가운데 무려 130개 학교, 고교는 28개교가 해당된다. 교과부는 특히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의무적으로 허가해주는 강제조항까지 신설했다. 무더기 전학으로 문을 닫게 되는 초·중학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 통학구역' 역시 독소조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학생들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를 제한하는 현행 '학구제'를 없애고 학교 선택권을 대폭 넓히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 전학 급증→ 학생수 감소→폐교 등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그에 따른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과 비용 가중, 과원교사 양산, 지역민의 정서 이반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물론 교원단체가 "교과부의 개정안은 전남교육을 황폐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과부는 인위적 통·폐합안을 즉시 취소하고 도교육청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같은 조건의 전북, 강원, 경북 등과 함께 공동보조를 취해 개정령안을 폐지시켜야 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에 학교마저 없애는 건 두번 죽이는 일이다.

# 도심 대형트럭 사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지난 19일 광주 도심 주택가에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트럭 사고가 난지 나흘만에 또다시 도심을 통과하던 덤프트럭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도심 운행 대형트럭에 대한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시 남구 봉선시장 입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25t 덤프트럭에 치어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있다 출발하면서 트럭 앞을 지나던 행인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광주경찰청 고시에는 4.5t 이상 화물차, 중기(덤프트럭·레미콘트럭 등), 폭발물·고압가스 운반차량이 통행제한구역을 통과할 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행제한구간은 남광주사거리~서방사거리~신안사거리~하남로~빛고을로~치평IC~우정청사거리~서창IC~제2순환도로~풍암IC~대남로~남광주 사거리 등이다.

하지만 통행제한구역이 제한적인데다 제한구역 통행도 공사 등을 이유로 신청만 하면 별 절차 없이 허가해주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험구역이더라도 통행제한구역이 아닐 경우 지침이 없어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경찰은 현재 통행제한구역 운행허가를 받은 중기가 220여 대이고, 제한구역 이외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600여 대, 레미콘트럭 530여 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00여 대의 대형차량이 도심 공사현장을 질주하고 있음에도 통행제한구역이 아니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심을 달리는 대형트럭은 사고시 무서운 흉기가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법규 보완과 함께 위험지역에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과속·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전자도 안전운행 준수는 물론 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종교칼럼

# 이름값 하며 살고 있나요?

윤빈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이름을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작명하였습니다.

이름을 짓는 성명학은 이름이 음양오행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흉운이 올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요. 아무튼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에 맞는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그 아이가 이름값을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빌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이름은 철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이 불리는 파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착안하여 파동성명학까지 유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양의 이런 철학적, 미래지향적 그리고 파동학적 작명에 비하면 서양의 이름 짓기는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독일에서는 자신이 잘하는 일이 그대로 자신의 이름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F1에서 여러번 우승을 한 미하엘 슈마허는 조상이 구두 수선공이었기에 슈마허라는 이름을 받았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FC 바이에른 회장인 프란츠 베켄바우어는 조상이 물통을 만드는 기술자였기에 베켄바우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수상이었고 유럽연합 창설에 지대한 공을 세운 헬무트 콜은 아마도 조상이 양배추 농사를 지었기에 콜이라는 이름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은 좋으나 이름값을 못하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3대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있지만 영원한 분쟁의 역사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샌프란치스코는 가난의 성자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땄지만 글쎄, 가난함, 아니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성인의 삶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당 중 하나인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보면서 모든 진보를 통합하겠다는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통합보다는 자기 파벌주의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왠지 입안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또 최근 일부 승려들의 도박파문은 전체 불교가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강을 살리겠다고 보를 만든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100%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름값을 잘못할 개연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강을 살린다는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는 '死'대강 사업이라고 야유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희생재물로 봉헌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과연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왠지 하늘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마지막에도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걸 맞는 이름값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주교 전례력으로 이번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인 성령강림일입니다.

성령이 불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어 그들이 스스로 닫아버린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도록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번 성령강림을 시작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우리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암삼호성당 주임 신부〉

## 기고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전승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는 송나라 학자 호인(胡寅)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나오는 글로서, 삼국지의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에서 유래되었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속담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통하고 있다.

어린 꿈나무들의 체육 잔치인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시·도간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어린 선수들에게 지나친 승부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종합득점제로 시·도간 순위를 정하는 전국체육대회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다.

하지만 언론이나 참가 선수단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비공식 순위경쟁을 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공식 집계가 실질적으로는 공식화된 게 정설이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체육회에서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온 게 사실이다.

우리 전라남도선수단 역시 그랬다.

전남도교육청은 상위입상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겨울부터 2개월간의 강도높은 동계훈련과 도 대표 확정 후 1, 2차에 걸친 특별 강화훈련 등을 통해 만전을 기했으며, 특히 학교, 가맹경기단체간의 혼연일체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 지난해 각종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부 특정 우수선수에 대한 관리 및 경기력 향상 대책은 그야말로 '친자식' 이상의 애정을 쏟아냈다. 결과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두고 우리 전남도선수단의 경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출중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부로 발표한 금메달 획득 예상 수는 33개. 하지만 내심 금메달 41개까지 계산에 두고 있다는 전언이다. 금메달 획득 종합 3위 달성이 최종 목표점이다.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면 우리 전라남도선수단은 지난 1986년 11월 1일 광주시와의 분리 이후 24년 만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는 쾌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4년과 2009년 금메달 최다 획득 39개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이 달성된다. 순위 역시 지난 2년 연속 4위보다 한 단계 앞설 수 있다.

농도(農道)라는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예상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체육회에서도 우리 전라남도선수단의 이러한 예상 성적을 갈망한다.

2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 그렇다.

첫째는 2012년 들어 전라남도 체육의 비상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전남 체육은 올해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양한 바 있다. 역대 최고득점(291점)을 획득하며 종합 7위를 차지했다. 4년 연속 종합 8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위권 진입의 기대치를 높였다.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꼬리표도 떼어냈다.

지난 4월 제51회 전남도체육대회도 성공리에 끝마쳤다. 전남도체육대회 사상 첫 개회식 생중계, 구례 군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체육인 모두의 화합으로 단 한 점의 시비 없는 매끄러운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 전남 체육의 이미지 제고 등 건전한 체육풍토 조성과 함께 전라남도체육대회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정립시켰다.

두 번째는 전남 교육계의 새로운 활력 모색이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전남 교육의 사기충천 및 위상제고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도 좋을 것이다. 개선장군(凱旋將軍)을 약속하는 우리 선수단에 힘찬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 無等鼓

# 청산도 초분

얼마전 완도 청산도에 다녀왔다. 슬로시티로 유명 관광지가 됐지만 나에겐 초행길이었다. 청산도 관광은 도청항 인근에 있는 영화 '서편제' 촬영지에서 시작해 범바위와 구들장논 등을 둘러본 후 다시 도청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이뤄진다. 농업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는 구들장논과 고즈넉한 돌담길, 나침반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범바위에서 바라본 풍광은 청산도만의 매력이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초분이었다. 초분은 전남 서남해안 일부 섬에만 남아있는 시신 매장법으로 본 매장에 앞서 임시로 마련해 놓은 짚더미 무덤이다. 청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정 선생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정 선생의 안내로 관광지를 둘러보고 도청항으로 되돌아 오는 길에 그의 부친 초분에 들렀다.

야트막한 야산에 2기의 초분이 나란히 있었다. 청산도에는 10여기의 초분이 있다고 하니 한번에 2기를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엉을 엮어 만든 초분은 보통 3년 후 육탈된 시신에서 뼈를 추려 정식으로 봉분을 갖춘 매장을 한다. 수시로 찾아뵙고 관리를 해야하고 장례를 두번 치르는 것이라 어지간한 효심과 재력이 없으면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청산도 주민들은 초분을 집안의 자랑이자 명예로 생각한다.

정 선생도 그랬다. 출세(?)를 위해 완도군청으로 나가 있는 동안 부친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자책감에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현대식 장례에 비해 힘들고 돈도 많이 들지만 출세보다는 곁에 계신 모친이라도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것이다. 현장에서 지켜 본 초분은 '현대판 3년상'이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를 맞아 "탈상의 기분으로 이젠 내려 놓겠다"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을 내놓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탈상을 계기로 출세길로 나서는 정치인을 보면서 이달 말 초분을 정리하고 탈상을 하는 정 선생이 떠올랐다. 고향을 아끼고 풍속을 지키는 그가 그립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 두부 판매점·요리 전문점, 콩 원산지 표시해 믿음줘야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만큼 그 영양이나 효능 등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우수한 작물이다.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비만 등의 위험 때문에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단연 최고의 식품이 바로 콩과 두부이다.

콩으로 만드는 음식중 가장 대표적인 게 두부와 콩나물이며 두부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고단백 영양식품이다.

요즘 도시에 나가면 콩나라, 두부나라, 혹은 두부 요리 전문점 등 콩과 관련한 음식점들이 많고 아주 성업중이다. 그런데 이 두부들의 원산지, 즉 두부의 원료인 콩의 원산지는 과연 어디일까.

나도 개인적으로 콩밥도 좋아하고 두부 음식도 참 좋아하는데 콩의 원산지를 알 수가 없어서 약간 답답하다. 특히 두부는 웰빙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즉석 손두부 전문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음식점들이 대부분 국내산 콩만을 사용한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솔직히 믿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생산되는 콩의 총 수량은 13만t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는 콩의 총 양은 49만t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차이인 36만t은 죄다 수입한 콩인 셈이다. 하지만 콩 요리, 두부요리 전문점에서 지금까지 수입한 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콩과 두부, 콩나물을 즐기는 소비자로서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고향 부모님이 계신 사람으로서 콩과 두부도 하루빨리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을 주장한다. 모든 국민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은데 요즘 유전자조작까지 논란이 있는 마당에 콩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너무나 급한 일이다. 정부의 조속한 제도화를 기대한다.

▲황은숙·광주시 남구 구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
| 편집국안내 |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FAX 227-9500〉 | 〈FA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기획사업국 2200-555 | 〈FA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